

‘노동자 사망’ 광주 오피스텔 공사장 인근 지반 침하

건물 기울기 평가 3등급 중 2등급 E등급...‘붕괴 위험’도 정밀안전진단은 양호...“건물 전체 진단 허점” 지적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광주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의 ‘굴착 공사’로 인해 주변 상가의 지반이 침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상가는 기울기 측정 결과 매우 불안정한 E등급 상태로 ‘붕괴 위험’ 진단을 받았고, 안전상의 이유로 1년 넘게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오피스텔 시공사의 의뢰로 실시된 정밀안전진단에선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와 상가 측은 “정밀안전진단은

기울기 외에도 전도, 팽창, 파손, 균열 등 다양한 분야를 진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을 뿐 기울기만 보면 이 상가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40대 근로자가 숨진 광주 서구의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현장은 지난 2020년 5월 25일 공사 허가를 받아 그 해 10월 30일 착공했다. 공사 현장 바로 옆의 타이어뱅크 상

무점은 2021년 10월 4일 상가 주변 바닥이 갈라지고 있음을, 12월 21일에는 지반 침하로 건물이 기울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월 서구청과 오피스텔 시공사 등에 각각 내용증명을 발송, 적법한 조치를 요청했고 시공사 의뢰로 광주 한 전문건설업체에서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타이어뱅크 건물 3개 동을 대상으로 ▲침하 ▲전도·경사 ▲배부름(팽창) ▲파손·손상 ▲균열 ▲이격 ▲세굴(흙) ▲배수시설·건물 구배(勾配·기운 정도)·누수 흔적·구조 등 주변영향인자

까지 살핀 결과 최종 등급은 A동 C등급, B동 B등급, C동 B등급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타이어뱅크 측은 “건물 전체가 아닌, 지반 상태를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자연적인 노화 등으로 인한 몸의 변화와 상태를 살필 땐 ‘종합검사’를 받는 게 맞지만, 사고나 충격 등 외부적 요인으로 특정 부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를 받는 게 맞다는 말이다. 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할 시

향목이 많아 어느 한 부분에서 하자가 커도 평균 점수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타이어뱅크의 주장이다. 때문에 타이어뱅크 측은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해 4월 1일자로 폐업했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상가 지반의 침하 정도와 기울기를 측정해달라고 대전 한 건설업체에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4월 12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각 동의 지반 조사와 기울기 등을 측정해 결과 A동 C-D등급, B동 E등급, C동 E등급이 나왔다. 이 업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기준인 침하 면적 1㎡ 이상의 침하

가 발생했다”며 “건물의 현 상태는 매우 불안정하며 향후 지진이나 강우, 지하수 유입과 같은 물리적 외부 조건에 변화가 있을 경우 지반침하가 증가돼 건축물(타이어뱅크 상무점) 추가 손상 및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타이어뱅크 측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평가서를 법률 검토를 마친 뒤 서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구 관계자는 “타이어뱅크와 오피스텔 시공사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 행정기관에선 누구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며 “다만, 타이어뱅크 측에서 결과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뒤 필요성을 판단하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노인센터 주도 요양급여 5억 횡령’ 23명 적발

센터·복지사·노인 수익 분배...광주경찰청, 2명 사전구속영장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5억여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노인복지센터 직원과 복지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노인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불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로 A 노인복지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가담한 재가 요양복지사 2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A 센터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

안 실제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면서 방문 서비스 이력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약 5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가 요양 복지서비스는 복지사들이 노인 자택에 직접 방문해 하루 최대 3시간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시간당 2만원씩 수령하는 구조다. 서비스 제공 확인은 시작과 종료 시점에 복지사 휴대전화로 서비스 대상자 자택의 스마트 태그를 접촉해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복지사들이 노인들의 집에 방문해 휴대전화로 태그를 접촉하거나,

센터장 등이 노인 명의 휴대전화를 여러 개 지니고 다니면서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으로 수령한 요양급여는 범행에 협조한 노인들에게 일부 수수료 형식으로 건네고 나머지는 센터, 복지사들이 쟁겼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등 혈세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오복기 기자

“남편이 위험” 현직 경찰관 고소 당해

현직 경찰관이 업무시간에 무단 퇴근해 가정폭력을 휘둘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수사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7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A 경위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지난 1월 16일 광주 남구 모처에서 아내와 딸다툼을 벌이다가 삼단봉으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위는 당시 업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삼단봉은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4월 광주 남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주성학 기자

공법 3단체 “5·18 가짜뉴스 삭제 건의 환영”

5·18 공법 3단체(부상자·공로자·유족회)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5·18 가짜뉴스’ 삭제 건의하겠다고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7일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공법 3단체는 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하겠다는 ‘5·18 가짜뉴스 삭제’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들은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사회의 혼

란을 야기하고, 이를 믿는 사람에게 오해와 분란을 일으키는 가짜뉴스 삭제를 건의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재차 환영했다. 또 단체들은 “우리 역시 온라인 상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성댓글로 역사를 왜곡하는 자들을 고발하는 등의 공동조치를 약속한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이를 기리는 노력이 계속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재영 기자



‘불법 카메라 끄짜!’ 7일 오전 광주 북구청 기후환경과와 북부경찰서·효령노인복지타운 안심순화대원들이 복구의 한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물레 설치된 카메라를 찾은 등 불법촬영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양식장 관리선 사고 잇따라...3명 부상

완도서 원인미상 폭발·고흥서도 불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선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7일 완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완도군 노화읍 미리리항에 계류 중이던 13기 양식장 관리선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당시 배에 타고 있던 30대 A씨와 20대 스리랑카 국적 B씨 등 2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완도=윤보현 기자·고흥=최봉환 기자

폭발은 선박 시동을 거는 도중 선미 쪽 기관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날 오후 7시 40분께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인근 해상에서도 양식장에 정박 중이던 관리선에서 불이 났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진화에 나서 2시간 만인 오후 10시께 주불을 껐다. 이 불로 관리선에 있던 선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해경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완도=윤보현 기자·고흥=최봉환 기자

도로 무단횡단 80대 차에 치어 숨져 양북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가 달리던 차량에 치어 숨졌다. 7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2분께 남구 주월동 백운교차로 인근 양북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A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B(33)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음주 상태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고 “어두워 미처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성학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제사나라 www.jesanara.com

전통 제사음식의 명가

- ▶ 안전기원제 고사
- ▶ 시 제 상
- ▶ 제 사 상
- ▶ 고 사 상

제사나라 문의. 062)527-0044/010-9970-2278
▶ 자매회사: 국제외식산업(주) 출장부페